

미래엔과 동아일보 교육법인이 함께하는

# 중학교 자유학기제

www.m-teacher.co.kr  
edu.donga.com

미래엔의 교수 활동 지원 플랫폼

Mirae N 엠티처

www.m-teacher.co.kr

vol.20 | 2018년 5월호

추천! 진로체험 프로그램

‘추천!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은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함께 가면 좋을 진로체험활동을 추천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체험이 이뤄지는지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대기오염집중측정소 ‘미세먼지는 무엇일까’ 불청객 ‘미세먼지’를 잡아라



미세먼지 측정기를 직접 살펴보는 학생들. 수도권 대기오염측정소 제공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초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뒤덮었습니다.”

최근 일기예보를 통해 자주 듣는 말이다. 호흡을 통해 체내에 들어와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가 연일 말썽을 부리자, 공기 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매우 높아진 상황. 이에 국립환경과학원 산하 대기오염집중측정소는 중학생들이 미래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미세먼지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미세먼지는 무엇일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중학생들은 먼저 미세먼지에 대한 이론교육부터 받는다. △미세먼지의 정의 △황사와 미세먼지의 차이 △미세먼지 측정 방법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 원인 등에 대해 알아보는 것. 또한 배움이 생활 속 실천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행동 요령도 배운다.

이론교육이 끝나면 대기오염측정소 현장견학을 통해 20여 종이 넘는 미세먼지 측정기를 살펴본다. 직접 미세먼지 농도도 측정해본다. 미세먼지 측정기를 가동해 공기 중의 미세먼지를 채취하고, 필터에 포집된 미세먼지를 육안으로 확인해본 뒤, 미세먼지 농도를 분석해보는 것. 각 프로그램은 모두 대기오염집중측정소에 소속된 미세먼지 연구 전문가가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수도권을 비롯한 △충부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 등 5개 대기오염집중측정소에서 운영된다. 수도권 대기오염집중측정소의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회당 20명의

인원이 참가할 수 있으며, 체험시간은 2시간 내외다. 참가를 원할 경우 꿈길 홈페이지(ggoomgil.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비용은 무료다. 문의 02-3157-0370

▶김지연 기자 [jiyeon01@donga.com](mailto:jiyeon01@donga.com)

#### 체험활동 연관 직업

\* 대기환경기술자 : 대기오염 상태를 측정하고, 대기오염의 방지 및 개선에 대한 방법을 연구하는 사람. 대기오염을 최소화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오염 방지 시설이나 장치 등에 대해 설계하는 일도 담당한다. 대기의 오염 정도를 통계적으로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수학적 분석력이 요구되며, 많은 사람들의 삶과 관련된 환경을 다루는 일이므로 책임감도 필요하다.

### ● 천리포수목원 ‘숲에서 미래를’

## 숲에서 스트레스는 ↓, 직업 이해는 ↑



화분에 식물을 옮겨 심고 있는 학생들. 천리포수목원 제공

숲은 복잡한 도심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치유의 공간이다. 충남 태안군에 위치한 천리포수목원은 ‘힐링’과 진로체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 ‘숲에서 미래를’을 운영한다. ‘숲에서 미래를’은 ‘숲 해설가’와 ‘가드너’ 직업에 대해 배우고, 해당 직업과 관련된 체험활동을 해보는 프로그램.

참가 중학생들은 ‘숲으로 가는 기차여행’과 ‘내 나무 갖기’ 두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먼저 ‘숲으로 가는 기차여행’에서는 안내자와 체험자로 역할을 나눠 수목원 곳곳을 탐방한다. 눈을 감고 숲을 걸으며 자연을 만끽하고, 직접 식물의 잎을 정리해보기도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숲

해설가가 단순히 식물에 대해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흥미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많은 이들에게 숲의 특징과 이로움을 알리는 사람임을 배울 수 있다.

‘내 나무 갖기’는 식물을 가꾸고 수목원을 관리하는 가드너 직업에 대해 알아보는 프로그램. 특히 ‘식물 옮겨심기’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 학생들은 옮겨 심을 식물의 특징과 식물을 옮기는 방법에 대해 배운 뒤, 직접 식물을 심어보며 가드너 직업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또한 ‘나’라는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지 얘기해보며 심리적으로도 한 뼘 더 성장한다. ‘숲에서 미래를’ 프로그램은 천리포수목원에서 진행되며, 체험시간은 총 3시간이다. 회당 최대 40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비용은 무료이며, 참가를 원할 경우 꿈길 홈페이지(ggoomgil.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41-672-9986

▶김지연 기자 [jiyeon01@donga.com](mailto:jiyeon01@donga.com)

#### 체험활동 연관 직업

\* 숲 해설가 : 숲에 사는 생물의 특성과 역할, 숲에 얽힌 역사, 숲과 인간의 관계 등에 대해 많은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는 사람. 숲을 주제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도 한다. 숲 해설가가 되려면 자연현상에 대한 호기심과 관찰력, 그리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창의력 등이 요구된다.

\* 가드너 : 다양한 식물들을 심고 가꿔 아름다운 정원을 만드는 사람. 정원의 환경과 구조를 파악하고, 각각의 장소에 알맞은 식물을 심고 가꿀 수 있어야 한다.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기 위한 예술적인 감각이 필요하여, 식물이 죽지 않고 잘 자라게 하려면 여러 식물의 특성에 대해서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